내 삶인데 내가 밀려난다

(사무엘상 27:1~12)

1.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육백 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4.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5.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6.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7.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일 년 사 개월이었더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인데 내가 밀려난다>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내 삶인데 내가 밀려난다'

어느 잡지에 "정 주면 사라지는 카페"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무너진다. / 홍대 합정동 인사동에서 경리단길까지 / 뜨는 동네를 이끌었던 가게들은 동네가 뜨면 내 쫓긴다"라는 문구가 부제처럼 달려있어서 내용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2004년 홍대 앞에 "이리 카페"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카페를 세운 두 사람은 한 명은 음악인이고 한 명은 미술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카페가 라이브클럽, 갤러리, 소극장이 되면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술가들은 물론이고 근처 홍대생들까지 즐겨 찾는 카페가 됐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 홍대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중심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카페를 두고 사람들은 '살롱 문화의 부활'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이리 카페는 홍대문화를 주도하는 큰 역할을 했는데 5년 만에 임대료가 세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계약 연장을 원했지만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자리를 옮겨야

만 했는데 옮긴 곳이 상수역과 당인리발전소 사이의 주택가였습니다. 주택 지하에 카페를 옮기자 이리 카페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시 상수동 거리가 카페 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 활동 무대가 합정동 서교동 홍대 앞이었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갈 때 235만원이었던 임대료가 6년이 지나면서 385만원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카페 운영진들은 인건비도 가져가지 못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최근에 평당 5,000만원에 건물 자체가 매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비싼 가격으로 건물을 사들인 주인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이리 카페를 사랑하는 많은 예술인들이나 홍대청년들이 고민 중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거리의 문화를 만들고 동네에 활기를 가져온 자영업자들은 결국 가파른 임대료 상승을 이기지 못하고 밀려나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한산한 곳에 가서 개성 있는 자영업을 통하여 거리를 활성화시키면 또 다시 임대료가 올라서 그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가게를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하면 들어간 비용을 회수 할 수 있도록 10~30년간의 장기임차를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개인과 주인이 짜고 임대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5년 사이에 3배가 오르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주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거리를 활성화시킨 상권의 주역들이 밀려나게 되는 상황이 마음 아픈 것은 분명합니다.
밀려나는 것은 생애에서 경험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선민들에게 있어서 밀려나는 것은 하나의 특권입니다. 자발적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밀려난다는 말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기 때문에 자발적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밀려나는 것은 스스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뉘앙스에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가는 것과 자발적으로 밀려나가는 것의 차이는 내가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유를 붙잡고 있는 한 밀려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밀려나는 것인데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10여년에 걸쳐 3차례로 나뉘는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의 삶에서 3차 도피시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본장부터 삼하2:1까지는 3차 도피시기에 해당되는데 그 3차 도피시기 중에서 1년 4개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사울의 추적을 피할 수가 없어서 추종자 600명과 그들의 가족 약 2500~3000명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의 남쪽 변방인 시글락 성읍을 왕에게 할당받아서 그곳에서 용병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놓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간의 주석들은 이 부분에 대해 대동소이한 해석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방 땅 블레셋으로 망명한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사울이 무려 여섯 차례나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고, 가족과 추종자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의 통치가 건재했기 때문에 3,000명이 먹고 살 수가 없었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은 사울 왕의 역적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사울의 위협으로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셨음을 기억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했다는 것이고, 이 시기는 다윗이 사명을 포기한 시기라고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과연 맞는 해석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해주신 땅에 사는 선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선정된 사람이었지만 이 자리로부터 밀려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비밀입니다. 주석들은 다윗이 밀려난 것이 아닌 도망간 것으로 보며 소명을 버린 것이라고 보지만, 십자가 복음 안에서 소명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는 내가 소명을 통해 이루어야 될 일과 영역으로부터 밀려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실생활을 해나가는 선민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게 소명이 주어질 때 그 소명 활동영역으로부터 밀려나지 않으면 소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밀려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사실을 그 유명한 주석가들이 어떻게 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봅니다. 먼저 다윗이 생존의 위협과 생계의 압박에 쫓기면서 하나님을 잊은 불신앙의 상태에서 다급한 마음의 판단을 따라 블레셋으로 피신한 것일까요?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의지하여 나갔던 할례 받은 자로서의 의식이 이때에는 까맣게 잊혔던 것일까요? 물론 다윗도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성정의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그러한 본문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밀려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등극하는 과정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십자가 복음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할당받았던 변방의 시글락도 유대 땅으로 복속이 되게 되고, 망명했던 블레셋의 땅들도 이스라엘의 땅으로 영입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밀려남이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다윗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라고 하는데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다윗에게 있어서 기름부음 받은 사울 왕을 대적할 수 없는 것이 붙박이 원칙이었는데,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믿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골

리앗을 돌로 죽이고 목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사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사울의 통치가 더욱 두터워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간섭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고 사울 왕의 통치가 현재로서는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자신의 거점을 확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울 왕의 통치에 구멍을 내야만 했고 부딪힘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동시절에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수하들도 600명이나 있는 지금 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대적 사울의 통치를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점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선택하신 다윗을 그 영토로부터 쫓아내시는 것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붙잡고 계시는 바람에 다윗은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고, 사울 왕의 기름부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밀려나는 것입니다. 밀려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울과 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한점으로 밀어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게 될 땅으로 밀려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친 가드도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적진의 심장부였습니다. 다윗이 통치하게 될 이스라엘 영역전체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긍정적 계획들이 완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영역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완전히 인정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의 주체성이 완전히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주체적 판단과 생각이 불가능해지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극단적으로 마지막 한 모금까지 완전히 받아들여져야만 했기에 완전히 밀려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빌라도의 재판조차도 아버지의 주권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가 핍박 받으며 집과 땅을 다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부랑자처럼 거리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그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도록 몰아붙이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100% 활용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밀려났던 이스라엘 땅을 그대로 회복하고 밀려나서 살았던 블레셋 땅인 시글락을 얻었

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블레셋과 주변의 이방민족 전체가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할당된 이스라엘로부터도 밀려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판단과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이끄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사장자리에서 완전히 밀려나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생활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에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자식과의 관계의 영역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밀려나야만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국경 바깥으로 완전히 밀려나가고, 홍대의 이리 카페가 임대료를 못 견디고 상수동으로 밀려나가듯이 나도 밀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밀려나가서 외인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삶의 모든 관심영역에 대해 죽으므로 그 삶의 영역으로부터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이 진심으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 일로부터 나의 만족과 기쁨의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내 마음이 성령님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아버지를 내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업으로 삼고 기뻐할 때에 내가 밀려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셨듯이 내 이름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울이 왕위를 누리게 되면서 이 지경이 되었지만, 우리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반드시 밀려남의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밀려남을 두려워하면서 지금도 모든 자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는 바로 밀려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나의 주체성이 밀려나게 되는데 그냥 밀려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기 때문에 마음 놓고 밀려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남편 앞에서 밀려나는 아내, 아내 앞에서 밀려나는 남편, 자식 앞에서 밀려나는 부모, 회사에서 밀려나는 과장님, 사업장에서 밀려나는 사장님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밀려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밀려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는 밀려나기 위하여 오늘도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관심거리 앞에서 죽음으로 나의 주체적 인격이 나의 삶으로부터 밀려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

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